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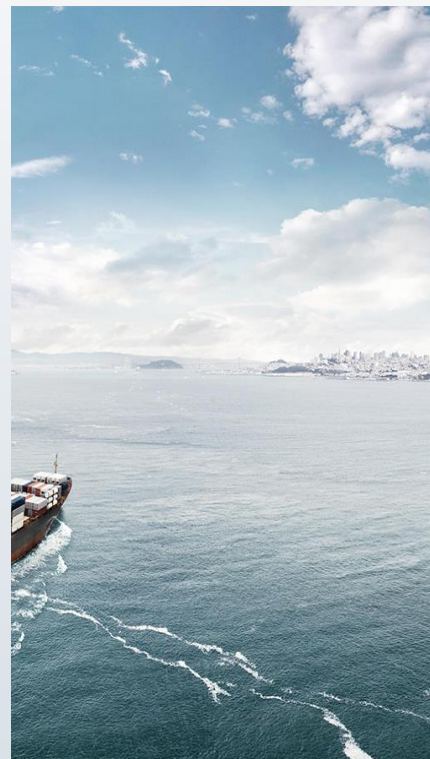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75

Updated November 19,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中, 그리스에 약 8 천억 투자...일대일로 유럽 진출 거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주도 확장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유럽 진출 핵심 거점으로 그리스 항만에 총 6 억 6000 만유로(약 8492 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송, 금융 등 15 개 분야의 경제 협력도 합의했다.

신화망,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그리스를 방문 중인 시 주석은 11 일(현지시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를 만나 아테네 인근에 있는 피레우스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은 총 6 억 6000 만유로 (약 8492 억원)를 투자해 그리스 피레우스항을 유럽 최대 상업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피레우스항에 대한 코스코 지분은 기존의 51%에서 67%로 확대된다. 코스코는 지난 2016 년 지분 51%와 함께 35 년간의 항만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피레우스항은 그리스 최대 항만이자, 유럽의 6 번째 컨테이너항이다. 중국은 피레우스항을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곳으로 보고 공을 들여왔다. 이곳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그리스를 발판삼아 유럽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그리스는 이날 피레우스항 투자 외에 에너지, 수송, 금융 등 15 개 분야의 경제 협력에도 합의했다. 그리스 전력사 'ADMIE'의 지분 일부를 보유한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그리스 본토와 크레타섬 사이 해저 전력케이블 구축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고, 중국은행(BOC)과 중국공상은행(ICBC)은 그리스 지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미초타키스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피레우스항의 환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상과 육로를 통한 유럽으로의 운송 능력을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 그리스 대통령과도 만나 양국 간 신뢰 강화 및 실무 협력 확대, 문명 대화 촉진을 통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그리스의 친선은 양국의 협력일 뿐만 아니라 양대 문명의 대화"라며 "개방적이고 실무적으로 중국-유럽 협력을 추진하는 모범이 되고 다자주의를 수립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I . ISSUE & TREND

강조했다. 이에 파블로풀로스 대통령은 “신중국 건국 70 주년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문명 충돌론’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그리스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며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초타키스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부인 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피레우스항을 직접 방문해 피레우스항의 중국인 및 현지 직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는 광범위한 협의, 공동 개발, 공동 수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 막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다.

2. COSCO, 유럽역내 수송 신설 회사 “다이아몬드라인” 설립

올들어 중국선사 COSCO 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SCO 는 최근 유럽역내 수송을 하는 신설 회사 “다이아몬드라인”을 설립했다. 현재 COSCO 독일 법인이 하는 운항, 영업업무 등을 차례로 새 회사로 이관해 간다.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10 월에 고객에게 통지한 자료에서는 정식 이관시기 등은 미정이지만 서비스 네트워크 등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COSCO 는 유럽역내에서 25 척, 5 만 2900TEU 의 선대로 16 서비스를 운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역내에서는 많은 피더 전업선사가 있으나 물량이 많은 기간항로 선사는 자기부담 역내 선사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1 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는 산하에 씨랜드 유럽(구 시고라인)을 둔 것 외에 CMA CGM 이 작년 유럽역내 피더 전업선사 컨테이너십스를 인수했다. 산하의 유럽역내 선사 맥앤드류스와 통합해 서비스 규모를 확대했다. 최근의 해운업계의 통합, 재편으로 기간항로 선사의 사업규모가 확대됐다. 운임교섭력 등이 증가함으로써 피더 전업선사에게는 어려운 사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 월에는 독일 팀라인즈가 조업을 중단했다.

COSCO 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배경으로 유럽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스는 2016 년 피레우스항의 주식 51%를 취득했다. 게다가 작년 벨기에 제브뤼헤항의 컨테이너 터미널(CT) 운영회사 APMT 제브뤼헤(현 CSP 제브뤼헤)에 76% 출자했다. 유럽 북부, 지중해측 양쪽의 항만에 거점을 구축했다. 이달 11 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그리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아테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피레우스항에 대한 대형 투자 등에 합의했다.

I . ISSUE & TREND

COSCO 가 피레우스항의 CT, 복합수송시설 정비를 하고 유럽 투자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유로의 용자를 받는다. 또 피레우스항을 기점으로 포워딩, 철도수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 PEARL(피레우스 유럽 아시아 레일 로지스틱스)의 주식 60%를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3. "증가율 1%대도 무너지나" WTO 세계무역전망 5분기 연속 위축

미·중 무역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며 세계무역전망도 5분기 연속 위축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교역 증가율은 1% 초반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10~12월)를 기준으로 한 세계무역전망지수(WTOI)는 96.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돈다. 전기(95.7) 대비로는 소폭 개선됐으나 무역전쟁 여파로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준선을 하회한 것도 무려 5분기 연속이다.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 무역 동향을 예측하는 WTOI는 100보다 낮으면 향후 수개월 간 무역 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한다는 의미다.

WTO는 "2019년이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교역흐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계속 약세"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교역이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한 해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WTO는 올해 교역 증가율을 당초 예상된 2.6%에서 1.2%로 하향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제품, 항공화물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공개된 주요 항목에서 수출주문지수(97.5), 자동차 생산·판매(99.8), 반도체 등 전자부품(88.2), 원자재(91.4), 항공화물수송(IATA · 93.0) 등 5개 항목이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특히 항공화물수송과 전자제품, 원자재는 전기, 전년 대비로도 더 악화됐다.

일각에서는 연간 기준 교역 증가율이 1%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도 제기된다. WTO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한 상품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증가폭(3.5%)에 대비하면 대폭 악화한 수준이다. 이날 공개된 WTOI 역시 올 하반기 상품교역 규모가 여전히 위축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TO는 덧붙였다. 지난 해부터 본격화한 무역전쟁의 직격탄이 각국 수출지표로 실제 반영되고 있는데다, 내년 1월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수입자동차 등 관세 위협

I . ISSUE & TREND

등도 향후 무역 전망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1 단계 무역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불안감을 키울 수 밖에 없다. 무역전쟁에 따른 긴장은 당사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이는 3년 9개월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추이로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며 10월 대중 수출은 16.9%, 대미 수출은 8.4% 줄어들었다.

4. 2020년 세계 철강시장 침체 전망에 업계 '전전긍긍'

내년도 세계 철강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추지미·사동철 수석연구원과 공문기 연구위원은 'POSRI 이슈리포트' 최근호에 발표한 '2020년 세계 철강수요 전망'이라는 리포트에서 내년 세계 최대 철강소비국인 중국의 제조업 부진과 경기부양 한계로 1% 이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요 역시 성장 둔화에 따른 철강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해 정체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를 포함하는 신흥국·개도국의 경우 반등이 기대되지만 하방리스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철강 수요 증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세계 철강수요는 중국의 예상외 호조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17억 8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중국과 선진국의 동반 부진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철강 수요 증가율이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계 철강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과 대규모 경기부양 한계 등으로 내년 철강 수요 증가율이 1.0% 내외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성장 둔화와 달러 강세,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 전방산업 수요 증가가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철강 산업 정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철강 빅 3의 올 3분기 영업실적을 보면 포스코의 경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5% 떨어져 수익성이 나빠졌다.

I . ISSUE & TREND

현대제철도 업황부진과 원가상승 부담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6%와 66.6%나 줄어들었으며, 동국제강 역시 전년 대비 매출 -6.0%, 영업이익 -4.8%로 전년 동기 실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철강산업이 내년에도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철강업계는 직접 수요 창출에 나서거나 고급제품의 브랜드화,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포스코는 지난 2015 년 이후 주력하고 있는 WTP(WORLD TOP PREMIUM)제품 판매 확대·철강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브랜드 개발 등에 나섰다. 지난 2015 년 초고강도강인 기가스틸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포스코는 지난해 초 MART(MARTENSITE)강 양산체제를 갖추는 등 고부가 가치성을 띤 WTP 제품 판매 비중을 크게 높여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는 각오다. 또한 최근 철강 프리미엄화를 목표로 고객사와 함께 강건재 통합브랜드인 '이노빌트(INNOVILT)'를 출시, 건축시장 수요 확대에 직접 뛰어 들었다. 이와 함께 날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 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도 수소전기차 생산증대에 따른 금속분리판 2 공장 증설·80 kg급 고연신 소재·100 kg급 냉연도금재 등 고강도·고성형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7 년 내진강재 전문 브랜드인 'H CORE(에이치코어)'를 론칭한 데 이어 고객 맞춤형 자동차 소재 서비스인 'H-SOLUTION(에이치솔루션)', 최근 출시한 내마모강 'WEAREX(웨어렉스)' 등 고급강재 브랜드화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수익성 위주 영업활동 확대·시장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및 기술력 강화로 시장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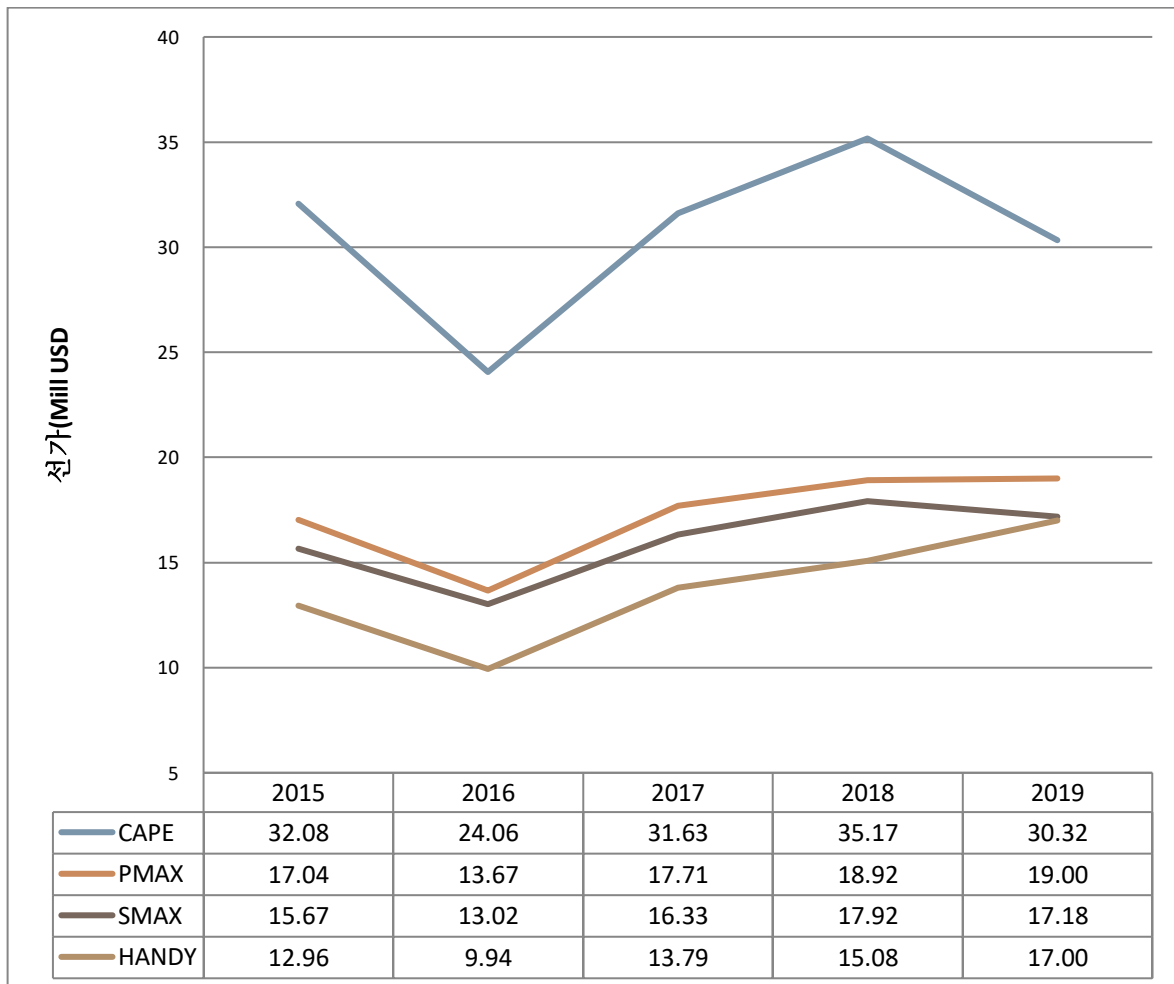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0.32
	-31.45%	-24.99%	31.43%	11.20%	-13.80%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18
	-36.04%	-16.91%	25.44%	9.69%	-4.12%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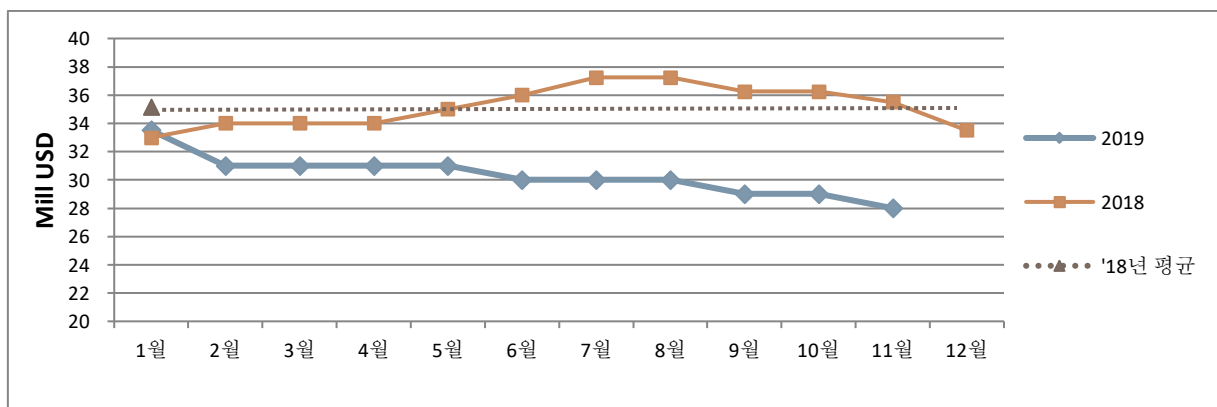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29.00	29.00	28.00		30.41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0.0%	0.0%	-3.3%	0.0%	-3.4%		-
		전년대비	1.5%	-8.8%	-8.8%	-8.8%	-8.8%	-11.4%	-19.5%	-19.5%	-20.0%	-20.0%	-21.1%		-13.5%
	PMAK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SMAK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18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0.0%	2.9%	0.0%	-2.9%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5.6%	-2.8%	-2.8%	-5.6%	-5.6%		-4.1%
HA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9.7%	6.3%	13.3%	13.3%	13.3%	13.3%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37.25	37.25	36.25	36.25	35.50	33.50		35.17
	PMAK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K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5.50	16.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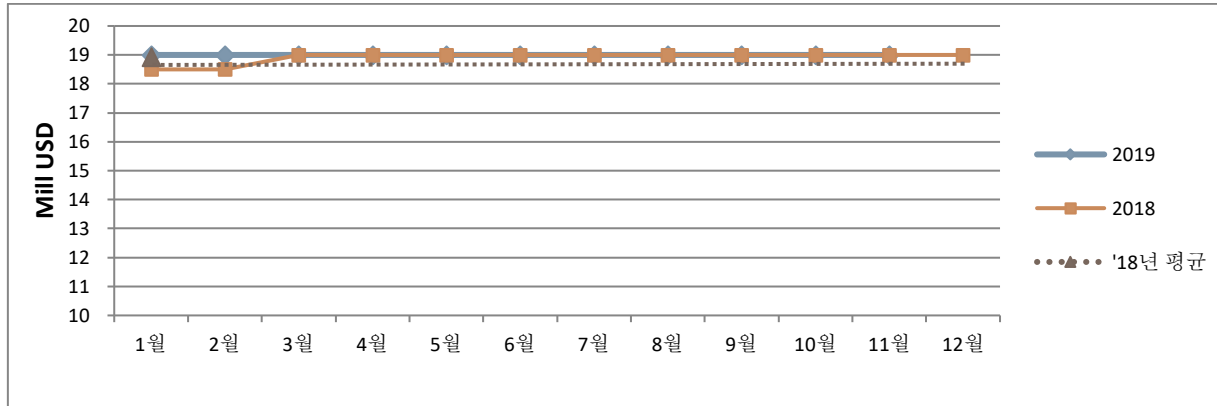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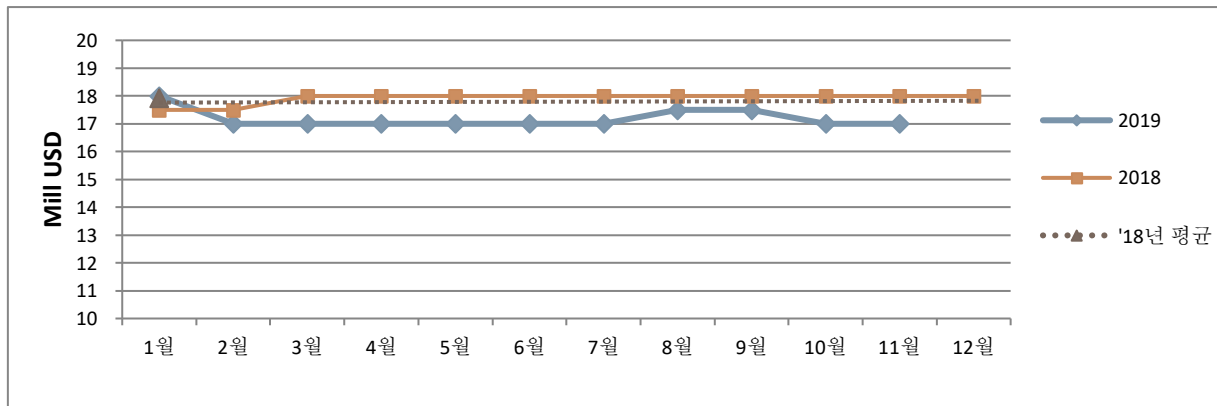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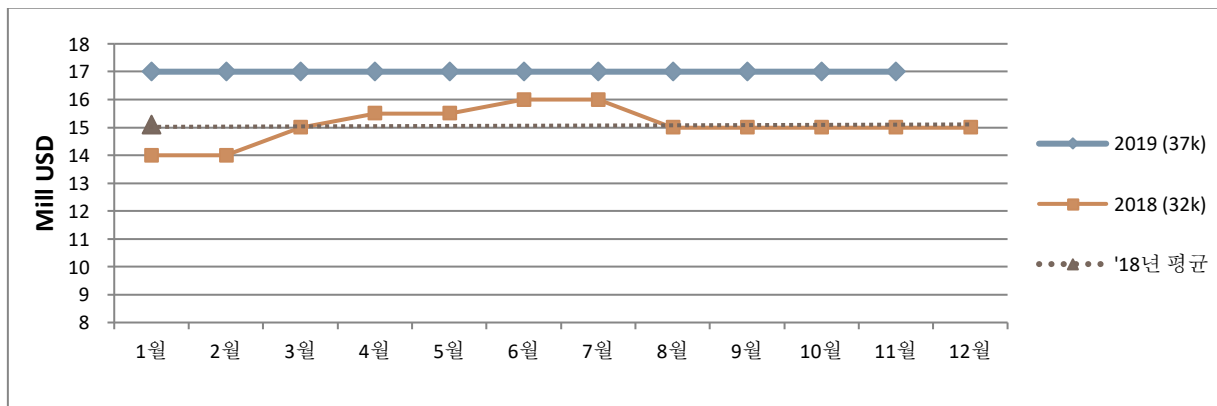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OCEAN SAPPHIRE	93,029	2012	CHINA	B&W		14.85	Greek buyer (Golden Union)
BC	OCEAN GARNET	92,500	2010	CHINA	B&W		13.65	
BC	DORA OLDENDORFF	33,108	2010	CHINA	MAN	C 4x30t	5.9	Turkish buyer
BC	AARGAU	32,790	2010	CHINA	B&W	C 4x30t	6.3	Undisclosed buyer
BC	ATALANTA	32,256	2001	JAPAN	MITSU	C 4x30t	5.2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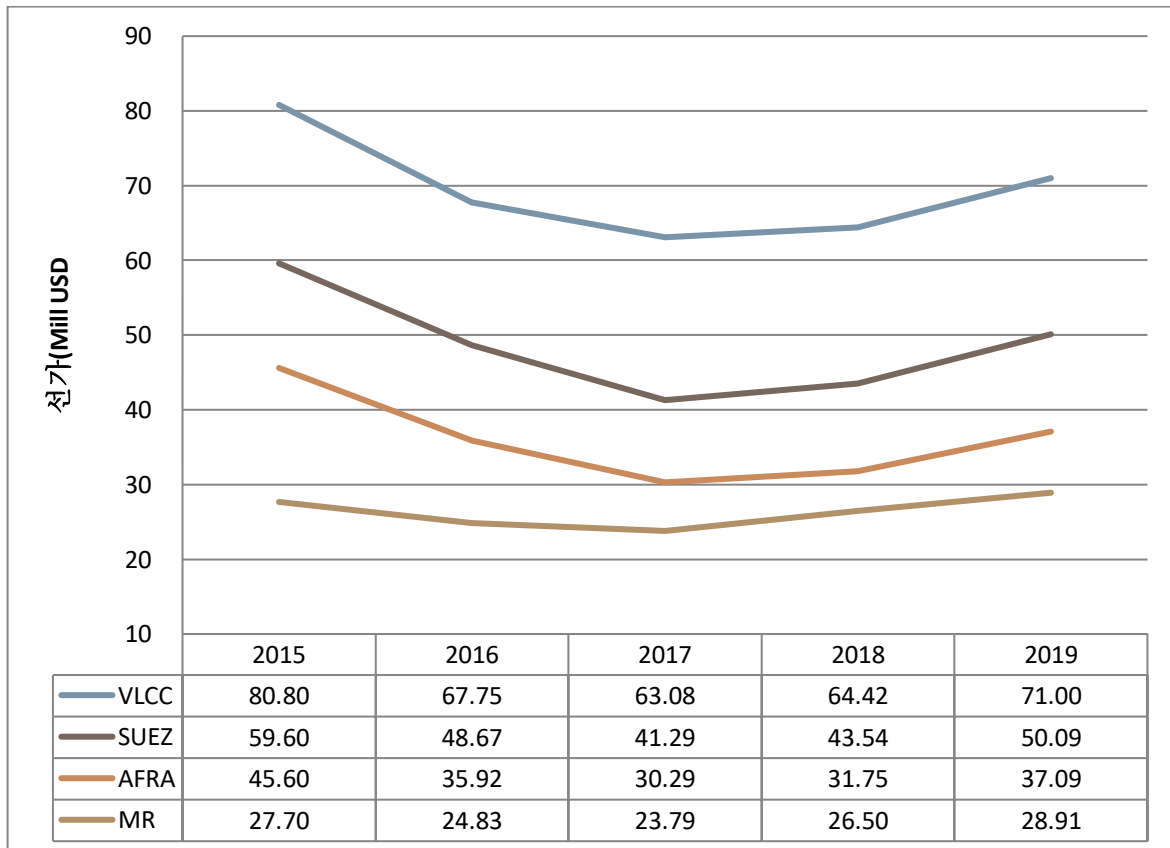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1.00
	9.04%	-16.15%	-6.89%	2.11%	10.21%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50.09
	17.32%	-18.34%	-15.15%	5.45%	15.05%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7.09
	17.83%	-21.24%	-15.66%	4.81%	16.82%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91
	2.97%	-10.35%	-4.19%	11.38%	9.09%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0.95
	-3.08%	10.45%	-10.78%	-5.20%	-6.93%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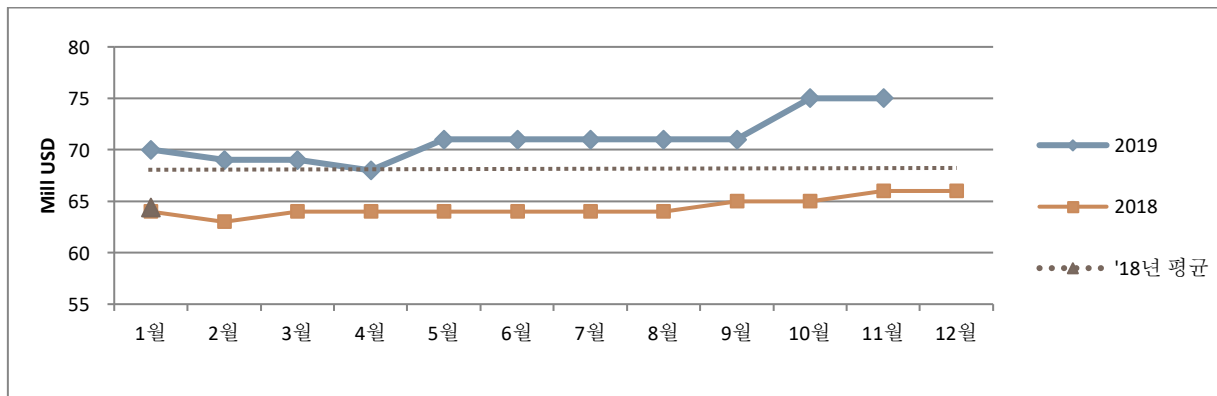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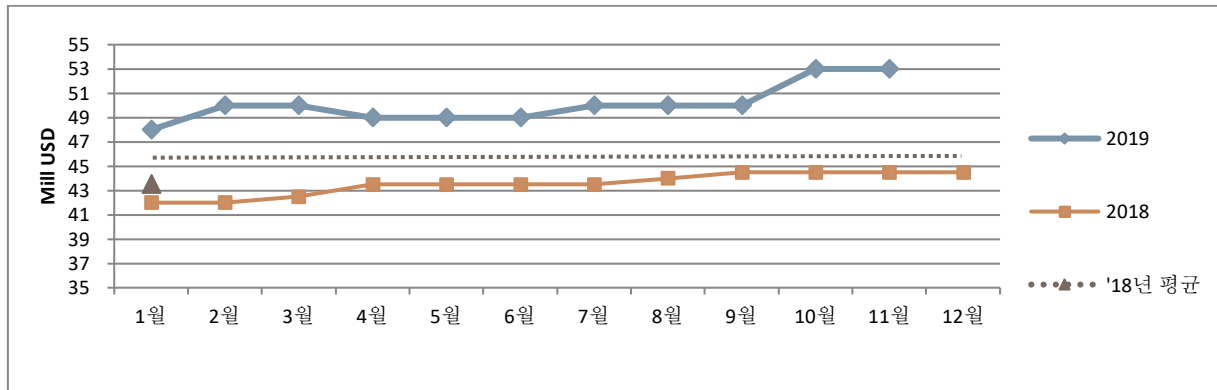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9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1.00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0.0%	0.0%	0.0%	5.6%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10.9%	10.9%	9.2%	15.4%	13.6%		10.2%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0.09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2.0%	0.0%	0.0%	6.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4.9%	13.6%	12.4%	19.1%	19.1%		15.0%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37.09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2.7%	0.0%	0.0%	7.9%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8.8%	18.8%	18.8%	32.3%	28.1%		16.8%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28.91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3.4%	0.0%	-3.3%	3.4%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12.1%	15.4%	7.4%	11.1%	9.1%		9.1%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0.75	10.75	10.75		10.95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0.0%	0.0%	-2.3%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4.3%	-4.3%	-6.5%	-4.4%	-2.3%		-6.9%
	2018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5.00	66.00	66.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4.50	44.50	44.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00	32.00	33.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75	26.75	26.00	27.00	27.00	27.50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25	11.00	11.0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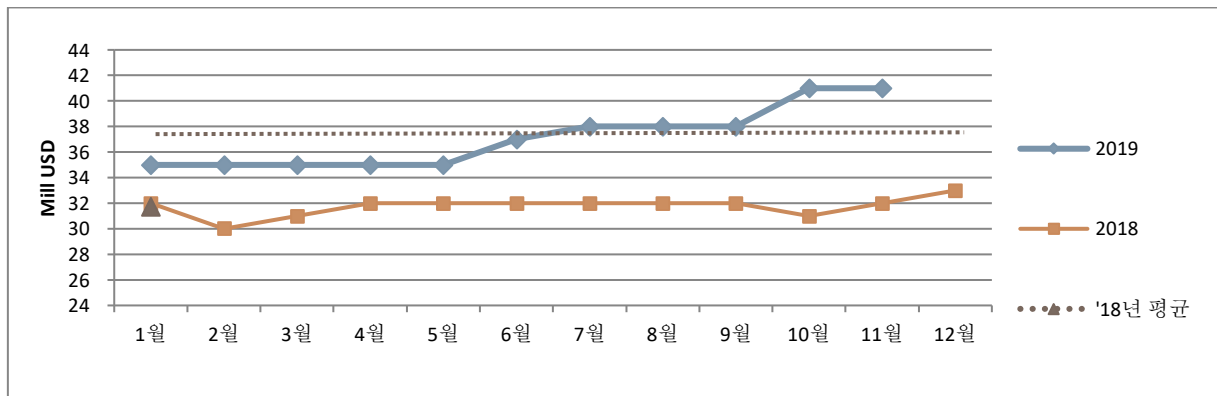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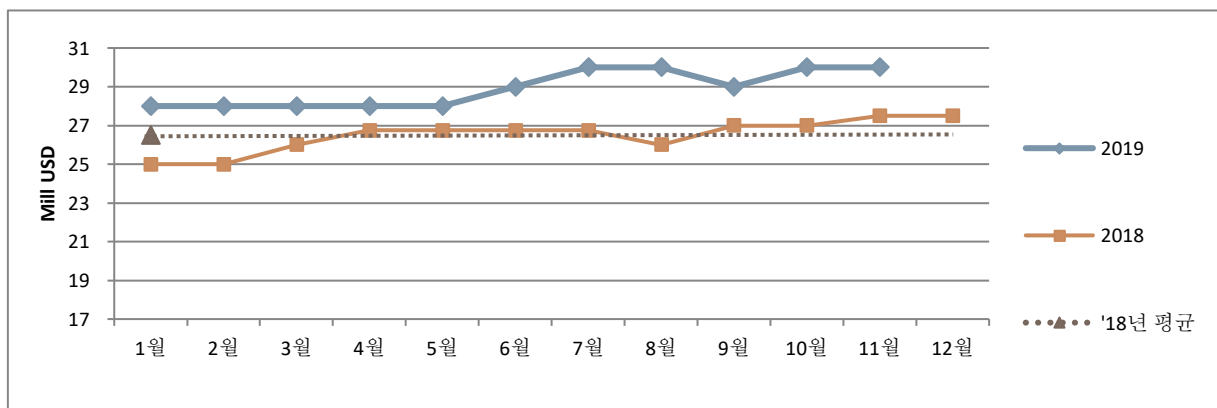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EA LATITUDE	308,700	2001	KOREA	B&W		26	Undisclosed buyer
TANKER	BERICA	115,146	2008	JAPAN	B&W		28.7	Greek buyer
TANKER	SEAWAYS PORTLAND	112,056	2002	KOREA	B&W		12.85	Undisclosed buyer
TANKER	FSL PIRAEUS	109,672	2006	CHINA	WART		19.85	Indonesian buyer (Buana Listya Tama)
TANKER	FSL PERTH	109,672	2006	CHINA	WART		19.85	
TANKER	ALYAH	73,072	2000	KOREA	B&W		7.0	U.A.E buyer
OIL /CHEM	TORM ALICE	50,216	2010	CHINA	B&W		17.5	Japanese buyer
OIL /CHEM	TORM ALEXANDRA	50,216	2010	CHINA	B&W		17.5	
OIL /CHEM	PANAGIA LADY	46,684	2004	CROATIA	SULZ		11	Undisclosed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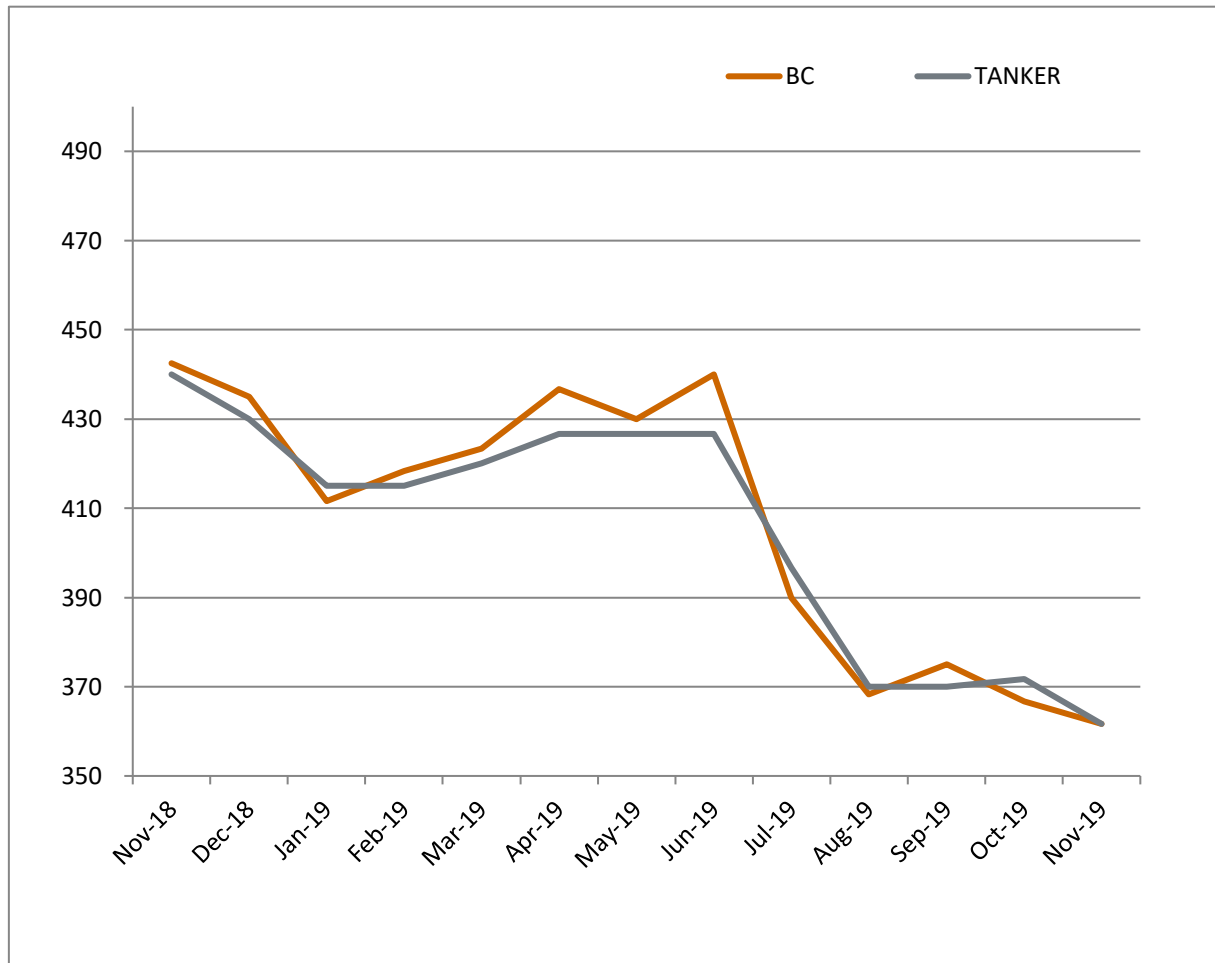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11 월	2019 년 1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00.00	-7.6%	440.00	361.67	-2.7%	-17.8%
BC	370.83	38.5%	440.63	18.8%	401.97	-8.8%	442.50	361.67	-1.4%	-18.3%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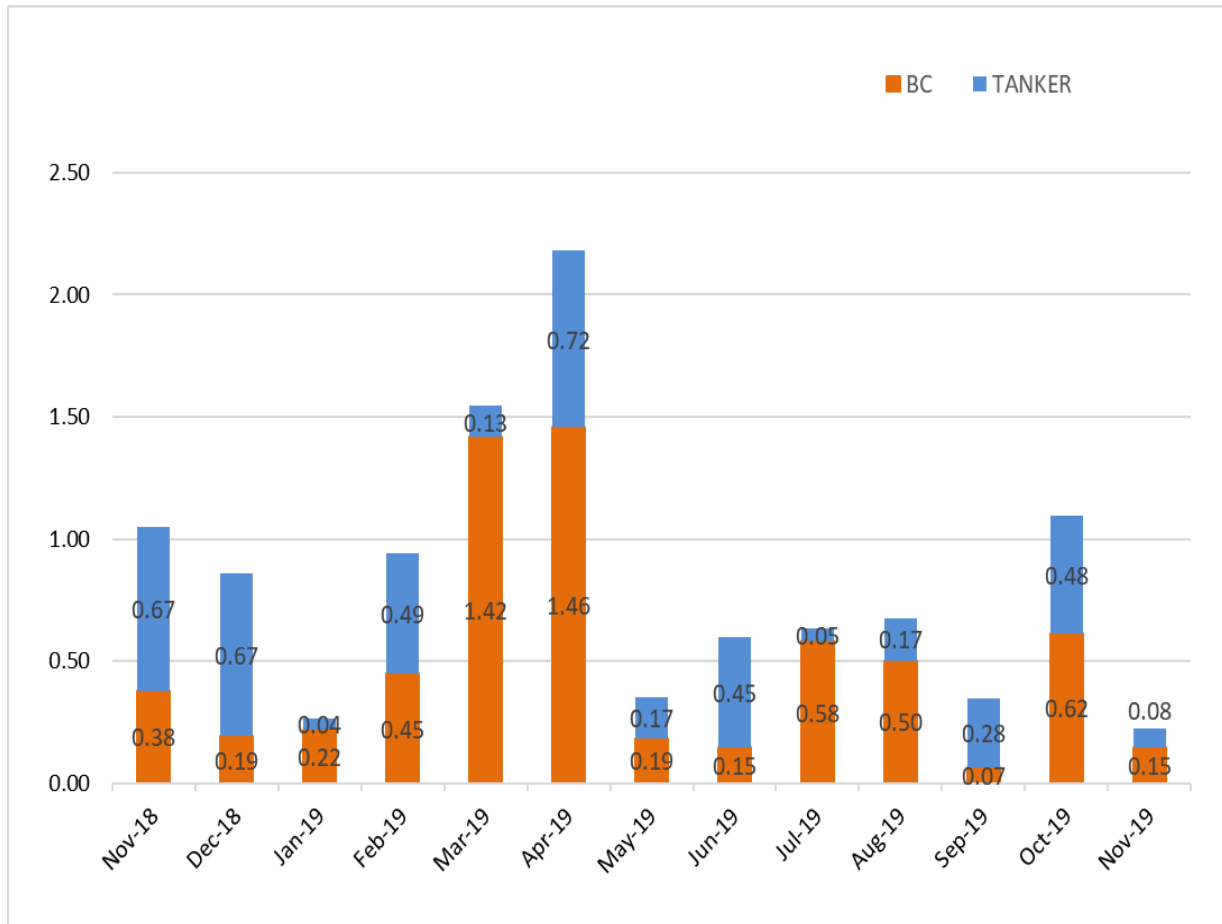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11 월		2019 년 1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3.06	14.7%	80	41.0%	0.67	11	0.08	-88.5%	3	-72.7%
BC	4.20	112	5.79	137.9%	96	85.7%	0.38	9	0.15	-60.8%	1	-88.9%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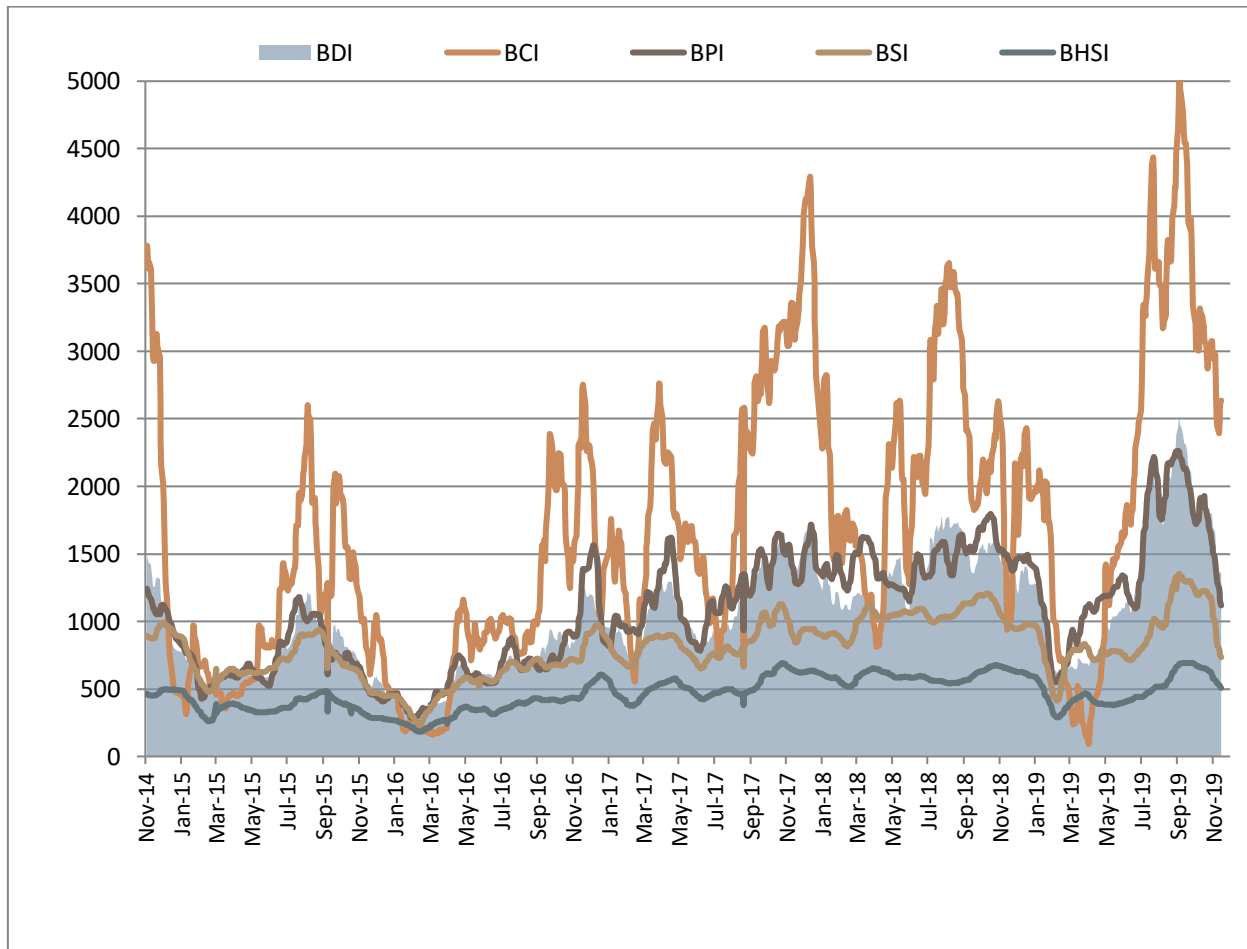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OIL/CHEM	ORCHIDS	29,990	7,280	1986	JAPAN	SULZER	382	Full sub-cont option
OIL/CHEM	TALA	7,313	2,600	1984	KOREA	MITSU	330	Pakistan buyer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11-15	2019-11-08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357	1378	▼-21.00	2518	290
BCI	2635	2444	▲191.00	5043	92
BPI	1118	1290	▼-172.00	2262	282
BSI	735	824	▼-89.00	1351	243
BHSI	509	539	▼-30.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13.00	▲8.00	246.50	▼-8.00	327.50	▲2.50
IFO180	342.00	▲3.00	278.00	▼-7.50	383.00	▲9.00
MGO	581.50	▲7.50	558.50	▼-1.00	625.50	▲4.50
LSMGO	585.50	▲4.00	558.50	▼-4.50	-	-
VLSFO	553.50	▲4.50	497.00	▼-4.00	574.50	▲3.50

❖기준일 : 11 월 15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11-15	2019-11-08	CHANGE
미국 달러	1170.40	1160.60	▲9.80
일본 엔(100)	1079.75	1062.09	▲17.66
유로	1289.96	1282.52	▲7.44
중국 위안	166.67	165.41	▲1.26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포모 혹은 고립공포감은 본래 마케팅 용어였으나, 사회병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용어로도 사용된다. 포모는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출처: 위키백과]

◇"주식 안 사면 나만 손해"?...FOMO 가 뭐길래

"현재 주식 랠리에서 자신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투자자들의 '소외공포'(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라 페이지진 윌러스베스캐피탈 선임전략가)

FOMO는 사교 모임 등의 자리에 자신만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최근 뉴욕증시 급등의 배경엔 이런 FOMO 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거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너도 나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실망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FOMO 랠리를 막진 못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11.19 일부 발췌]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